

독일어 수동형 형태의 생성과정과 그 통시적 변화과정¹⁾

김재명(강원대)

1. 서론

오늘날 독일어의 수동형은 행동수동과 상태수동, 즉 “werden + PP”와 “sein + PP”의 二元化된 형태를 보인다.²⁾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개의 수동형태를 다음 사항을 초점으로 하여 다루고자한다.³⁾

1) 현대독일어에서 “w + PP” : “s + PP”의 사용빈도는 “73,8% : 26,2%”로 전자가 월등하다 (Brinker 1971, 107). 그러나 고대독어 시기의 Otfrid에서는 “98 : 203”로 “s + PP”가 훨씬 많고, Tatian에서도 역시 2배로 우세하다 (Fritz 1994, 165; Kotin 1988, 74). 또 중세독어의 Parzival에서도 “606 : 738”로 “s + PP”가 아직 우세하다 (Eroms 1989, 86). 그러나 초기근대독어에선 “86,5% : 70,4%”로 그 비율이 역전된다 (Brinker 1970, 178). 그 이유는 무엇일까?

2) “s + P.P.”의 형태는 수동형에서만 아니라, 능동형 완료형에도 역시 보인다. 영역은 다르지만, 같은 형태를 보이는 이 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werden은 수동형에서뿐만 아니라 미래형에서도 조동사로 사용된다. 이들 두 영역에서 werden이 함께 사용되는 함수관계는 무엇인가?

3) 게르만어의 時制 Tempus조직에는 원래 현재형과 과거형만이 있었다. 그렇다면 현대독일어에 보이는 현재완료형, 과거완료형, 미래형 등의 다양한 수동형 시제형태들은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

1) 본 논문은 2000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작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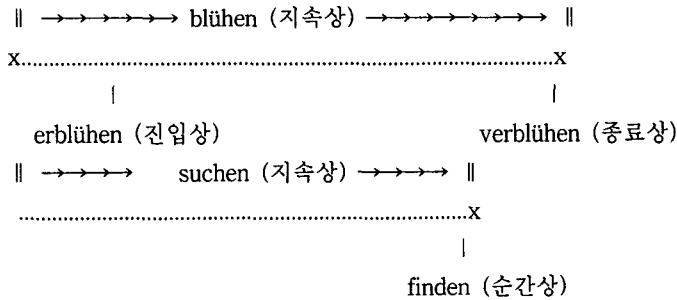
2) 앞으로는 이를 ‘w + PP’와 ‘s + PP’로 각기 부르기로 한다.

3) 이밖에 독일어에는 광의의 수동형으로 ‘sein + zu + Inf.’ 등 여러 변이형태들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를 다루지 않는다. 이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Askedal (1986), Brinker (1971, 117ff), Eroms (1978), Helbig (1997) 등을 참조할 것.

2. 초기 게르만어의 동사체계와 相Aspekt의 관계

2.1. 인도유럽어에서 相 Aspekt을 기반으로 하던 동사체계는 게르만어에 이르러 시제 Tempus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어나간다. 초기에는 현재형과 과거형만 있었던 게르만어 동사체계에서 시제는 시간이 감에 따라 차차 그 역할이 증대된다. 그러나 고트어나 고대독어 등 초기 게르만어의 동사체계에서 相은 아직 큰 역할을 한다. 그후 시제의 역할 증대와 더불어 상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어, 현대독일어에서는 相이 문법적 형태로서는 거의 안 보인다.

相은 크게 持續相 durativ과 완료상 perfektiv의 둘로 나뉜다. 지속상이란 동사에서 나오는 행위나 상황이 어떠한 한계를 보이지 않고 지속됨을 뜻한다. 즉 線的인 측면이다. blühen, suchen, tragen 등이 그 예다.⁴⁾ 반면에 완료상이란 동사에서 나오는 행위나 상황이 이제 막 시작되거나, 종료됨을 나타낸다. 또 이것이 어떤 한 순간에 일어남을 나타낸다. 즉 点的인 측면이다. 이 동작이나 행위가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 瞬間相 punktuell (finden, treffen), 進入相 ingressiv (erblühen), 終了相 egressiv (verblühen) 등으로 나뉜다.



2.2. 지속상을 내포한 동사의 과거분사는 명백히 현재와 관련되어진다. 과거나 현재완료의 성격은 전혀 없다. 'Ein geplagter Mensch'에서 이 Mensch는

4) 이들 동사들은 경우에 따라서 지속기간을 나타내는 요소를 동반한다.

z.B. er arbeitet *den ganzen Tag*
 sie weinte *lange*.

예전에 괴롭힘을 당했던 자가 아니라, 지금도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즉 과거분사 *geplagt*는 *Mensch*의 현재 상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ein unglücklicher Mensch'에서의 형용사 *unglücklich*와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 단지 순수한 형용사와 다른 점은, 이 과거분사가 동사 *plagen*에서 나와서 아직도 동사의 영역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속상을 가진 동사에서 나온 과거분사는 이 동사가 갖고 있는 행위에서 나온 상태가 현재에도 지속됨을 보여 준다.

반면에 'ein entlaufener Hund', 'eine geladene Pistole' 등에서처럼 완료상을 가진 동사에서 나온 과거분사는 앞선 행위의 종결에서 나온 현재상태를 나타내며, 그 상태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즉 여기에서 도망친 개는 예전에 도망간 후에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 있다. 또 이 피스톨은 예전에 한번 장전되었다가, 다시 그 장전이 풀렸거나 발사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발사 준비상태로 있다. 따라서 이들 과거분사들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완료의 상태이다. 즉 이 과거분사와 관련된 동사의 행위는 과거에 일어났지만, 그 결과로 생긴 상태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⁵⁾

2.3. 고트어 및 고대독어에서는 이러한 동사자체가 갖고 있는 動作樣態 Aktionsart에서 나오는 문법적인 相이 동사체계에서 역할상 시제보다 우선한다.⁶⁾ 그리고 이때에 무엇보다도 접두어 *ge-* (got. *ga-*, ahd. *gi-/ga-*)가 중요

5) 일부 동사들의 경우에는 이 두 개의 상을 함께 보이기도 한다:

z.B. *er fährt den ganzen Tag* (지속상)

er fährt in die Stadt (완료상).

이런 동사들에게서 상의 구분은 문장에서 함께 나타나는 다른 요소들이나, 문맥을 통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다:

a) *ein von vier Pferden gezogener Wagen* = ein Wagen, der von vier Pferden gezogen wird (지속상)

b) *eine aus dem Wasser gezogene Leiche* = eine Leiche, die aus dem Wasser gezogen worden ist (완료상).

6) 動作樣態 Aktionsart와 相 Aspekt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구분하기도 한다. 전자는 동사에 내재한 의미상 성격을 뜻하는 반면, 후자는 동사의 의미가 문법적 성격에서 어찌 발현되는가의 관점에서 다루어진다. 그러나 독일어에서 이 둘의 성격은 엄격히 구분하기 어렵다. Leiss (1992), Kotin (1998) 등은 전자의 명칭대신에 동사상 Verbalaspekt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이를 相으로 통합

한 역할을 한다. 이들 언어에선 지속상의 동사라도 ge-가 접두사로 첨가되면 완료상의 동사로 탈바꿈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대립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ge-의 이런 기능은 오늘날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⁷⁾

지속상

완료상

got. slēpan “schlafen” : gaslēpan “einschlafen, entschlafen”

ahd. slafan “schlafen” : gislafan “einschlafen, entschlafen”

2.4. 현대독어에서 다음 문장들은 모두 ‘s + PP’의 구조를 보인다.

- a) Sie ist gekommen.
- b) Sie ist gestorben.
- c) Das Fleisch ist verdorben.
- d) Das Kleid ist verdorben.
- e) Er ist getauft.

그런데 위에서 a)-c)는 능동형 현재완료형으로 시제 Tempus체계에 속하지만, d)와 e)는 상태수동으로態 Genus verbi에 속한다. 이들의 과거분사는 전자는 자동사에서 (= PPvi), 후자는 타동사에서 나온 것이다 (= PPvt). 그런데 오늘날 동사 verderben은 자동사로 뿐만 아니라 타동사로도 사용된다. 이런 경우 c)와 d)는 외형상 문법적 구분이 어렵다.

위 문장들에게서 ‘s + PP’는 공통적으로 결과상 resultativ을 보인다. 즉 과거에 일어난 행위의 결과로 생긴 현재 상태를 보인다. 그렇다면 고트어와 초기 고대독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모두 한 뿌리에서 나왔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w + PP’와 ‘s + PP’의 분석적 수동형은 相의 관점에서 구분되어 사용될

하여 서술한다.

- 7) 원래 완료상이었던 동사들은 원래 과거분사형에 접두어 ge-가 없었다. 고트어에서는 동사 어간에 어미 -ans만 덧붙이면 과거분사형이 되었다. 과거분사형에 접두어 ge-가 일반적으로 덧붙여지는 현상은 고대독어 이후이다. 그러나 고대독어 kuman “kommen”, fintan “finden” 등 일부 완료상의 동사들에게서는 ge-가 없는 과거분사형이 보통 사용되었으며, 이는 초기근대독어의 늦은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뿐, 이들을 구성하는 두개의 동사 요소는 서로 독자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4.2). 이에 Leiss (1992, 166ff)도 's + PP'를 결과태Resultativum라는 용어를 내세우면서, 오늘날의 능동형 완료형과 상태수동은 모두 이 결과태에서 발전해 나온 변이형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Beedham (1987)은 현대독일어에서의 완료형과 상태수동은 포괄하여 결과태로 분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조차 하고 있다.⁸⁾

3. 고트어의 수동형

오늘날의 독일어는 고대독어, 중세독어, 초기근대독어를 거쳐서 생겨났다. 따라서 고트어는 현대독일어의 직계 라인선상에 있진 않다. 그러나 Wulfila가 고대그리스어에서 고트어로 번역한 복음서는 그 양이 상당하고, 그 시기도 4세기 후반으로 모든 게르만어의 기록물 중에서 단연 앞선다. 또 기타 여러 기록물이 남아있어서, 고트어는 원래게르만어 Urgermanisch 문법의 원형을 찾는 데 귀중한 역할을 한다.⁹⁾ 고트어에서의 수동형은 다음 3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 a) '어간 + 수동형 어미형태'의 통합적 수동형태
- b) nan- 접미사를 보이는 능동적 수동형태
- c) 'wairþan + PP', 'wisān + PP'의 분석적 수동형태¹⁰⁾

8) 이미 Behagel (1924, 272ff)도 이렇게 자동사나 타동사의 경우를 막론하고 과거분사와 sein의 결합형, 즉 's + PPvt'와 's + PPvi'를 동일한 문법형태로 보았다. Dal (1966, 128)은 'der Baum ist gefallen'와 'der Baum ist gefällt'의 두 문장은 동일한 형태이며, 다만 과거분사에 내재한 의미상에서 그 성격이 구분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과거분사가 갖고 있는 의미의 성격상 전자는 완료의 성격이, 후자는 수동의 성격이 나오는 차이가 있다 하였다. Rupp (1957, 267)도 이런 두 문장의 서술방식이나 그 구조는 동일하게 보고 있다. 다만 화자의 초점이 한편에서는 행위자에게, 다른 편에서는 행위를 당한 자에게 있을 뿐이라 하였다. 작금의 학자들 중에서도 Eroms (1990, 82) 등이 이런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9) 고트어에 비교하면 기타 게르만어에서는 상당히 늦은 시기에 기록물들이 나타난다. 고대영어는 8세기에, 고대독어는 9세기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기록물이 나타난다.

10) 고트어에서 오늘날의 werden에 상응하는 동사는 wairþan이다. 그리고 sein에 상응

이를 직설법 현재형 및 과거형 단수 3인칭을 예로 하여, 도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분석적 수동형태		통합적	능동적
	wairþan + P.P.	wisan + P.P.	수동형태	수동형태
Präs. Ind. Sg.3	wairþiþ daupiþs	ist daupiþs	daupjada	fullniþ
Prät. Ind. Sg.3	warþ daupiþs	was daupiþs	-	fullnoþa

그러나 기술적인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고트어의 수동형에 대한 더 이상의 상세한 서술은 피하기로 한다. 다만 c)의 사항에서만은, 필요하면 초기고대독어의 그것과 함께 다루기로 한다 (§4.2; §4.3).

4. 초기 고대독어의 수동형

고대독어에서는 고트어와 달리 통합적 수동형태나, 능동적 수동형태는 전혀 없고, 'w + PP'와 's + PP'의 분석적 수동형태만 나타난다. 그런데 초기고대독어의 분석적 수동형태의 용법은 고트어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다. 고대독어에서의 이들의 사용법은 9세기초반의 초기고대독어시기와 11세기 전후에 Notker가 활동한 후기 고대독어시기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두 시기를 구분하여 다룬다.

4.1. 고트어나 고대독어의 분석적 수동형태는 고대그리스어 내지 라틴어의 영향에 의해 생겼으리라고 생각하기 쉽다. 왜냐하면 불필라Wulfila가 번역한 고트어의 성경번역은 고대그리스어의 것을 원전으로 하였고, 고대독어의 대부분 번역은 라틴어가 원전이였다. 그런데 전자의 언어들에는 다양한 시제와 수

하는 동사로는 ie. *es-에서 나온 형태들 외에 wisan이 또한 있다. 전자는 현재형 직설법Indikativ과 원망법Optativ에서 나타나고, 그 외에서는 후자의 형태로 나타난다 (Braune 1981, §204 참조). 따라서 'wairþan + PP'는 'w + PP'에, 'wisan + PP'는 's + PP'에 해당한다.

동형을 위한 어미형태가 있다. 따라서 원전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당시 번역자는 이들 언어들의 문법체계의 틀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을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고트어나 고대독어에는 원전에서 보이는 다양한 시제나 수동형을 수용할 문법체계가 미처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게르만어의 기존 단어와 문법체계 내에서 이에 상응한 형태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있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분석적 수동형이 만들어졌으리라고 쉽게 생각된다. 이에 많은 학자들이 원전 언어들에게서의 문법과 대응시키면서, 게르만어에서의 “w + PP”와 “s + PP”의 사용기준을 찾고자 하였다 (Eichinger 1987, Lussky 1924, Rupp 1956, Schröder 1955/1957, Zadorozny 1973/1974 등). 그러나 고대그리스어나 라틴어에서의 원전과 이의 고트어나 고대독어로의 번역본에 나타난 문장구조를 비교 분석하더라도, 상호간 연관성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분석적 수동형의 사용기준은 각기 고트어와 고대독어 자체 내에서 찾음이 타당하리라 본다 (cf. Bammesberger 1979, 105).

이 분석적 수동형태는 원래 게르만어에 원래 있었던 것 같다. 왜냐하면 게르만 시대에서부터 口傳되어 기록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메르저부르크呪術詩에서 이미 분석적 수동형태가 보이기 때문이다.¹¹⁾

1) du **uuart** dem Balderer volon sin vouz **bilenkit** (Z. 6)

“Da wurde dem Balders Fohlen sein Fuß verrenkt.”

2) ben zi bena, bluot zi bluoda, lid zi geliden, sose **gelimida**
sin (Z. 13)

“Bein zu Bein, Blut zu Blut, Glied zu Gliedern, als ob sie gelemt seien (wären).”

이렇게 구전의 성격이 강한 기록물들에 라틴어의 강한 영향이 있었다고는

11) 이런 수동형태는 역시 구전의 성격이 큰 Muspilli에도 보인다.

a) enti imo after sinen tatin **arteilit uuerde** (Z. 85)

“Und ihm nach seinen Taten erteilt wurde”

b) doh uuanit des uilo gotmano, daz Elias in dem uuige **aruuarit uuerde** (Z. 49).

“Doch glauben viele Diener des Gottes, dass Elias in der Schlacht verletzt werde.”

보기 어렵다. 물론 Tatian, Otfrid 등 라틴어 성경을 원전으로 한 번역물에는 라틴어의 영향이 컸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 언어가 고대독어에서 분석적 수동 형태를 새로이 만들게 했다고보다는 이 형태의 수동형으로서의 생성 및 문법화 Grammatikalisierung 과정에 촉진적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¹²⁾

4.2. 고대독어 분석적 수동형에서의 특이한 점은 과거분사에 주어의 性 Genus, 數 Numerus, 格 Kasus에 상응하는 어미형태가 덧붙여져 나타나는 점이다.¹³⁾

- 3) *wanta ist gibet thinaz fon druhtine gihortaz* (Otfrid I,4,28)
 “denn ist dein Gebet vom Herrn gehörtes”

즉 3)에서 주어인 *gibet*에 상응하여 과거분사에 중성 단수 1격 어미 *-az*가 보인다. 그러나 역시 성경의 같은 부분, 즉 누가복음 1장 13절을 역시 번역한 Tatian은 Otfrid보다 30년이 늦은 기록물인데도 불구하고, 과거분사에 아무런 어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 4) *gihōrit ist thin gibet* (Tatian II,5)
 “Gehört (= Erhört) ist dein Gebet”

12) Bammesberger (1979), Schröder (1955), Schröder (1957), Zadorzny (1973/4) 등은 고트어와 고대독어와 고대그리스어 bzw. 라틴어와의 대응관계를 면밀히 조사하였지만, 번역상 이들 언어들 간에 규칙적인 상응관계는 찾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13) 이렇게 어미를 보이는 현상은 고트어에서도 예외 없이 보인다.

a) *jah wairþand allai laisidai gudis* (Johannes 4,45)
 “und werden alle von Gott gelehrt.”

b) *ni ogs þus, Zakaria, duþe ei andhausida ist bida þeina* (Lukas 1,13)
 “Fürchte dich nicht, Zacharia, denn dein Gebet ist erhört.”

즉 a)에서는 복수형인 주어 *allai*에 상응하여 과거분사형에 남성 복수형 1격을 위한 어미 *-ai*가 보인다. 또 b)에서는 주어인 *bida*가 여성 단수 명사임으로 과거분사형에 여성 단수 1격을 위한 어미 *-a*가 보인다.

이로 보아, 초기고대독어에서는 고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동사와 과거분사가 서로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3)과 달리 4)에서처럼 어미가 없는 과거분사 형태가 훨씬 많아지는 것으로 보아, 정동사가 조동사로 바뀌어 가는 과정은 이 시기에 벌써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¹⁴⁾

4.3. 형태구조상으로 보면, 고트어나 고대독어의 ‘w + PP’와 ‘s + PP’는 각기 현대독어의 행동수동과 상태수동에 대응하여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다음 문장들에서는 이런 대응이 쉽지 않다.

- 5) ir sizzet in thera burgi, unz ir **sit giuuatite** mit meginе fon hōhi (Tatian 244,1)
 “Ihr bleibt (aber) in der Stadt bleiben, bis ihr mit der Kraft aus der Höhe ausgestattet werdet.”
- 6) thō Herodes gisah uanta **her bitrogan uuas fon then magin** (Tatian 10.1)
 “Da erkannte Herodes, dass er von den Weisen ertrogen worden war.

우선 5)에서는 unz “bis”에 이끌리는 부문장 내에 동사 sit “seid”가 보이지만, 문맥상 이곳은 상태수동이 아닌 행동수동이 분명하다. 특히 접속사 unz “bis”가 갖는 의미의 성격상, 여기에선 상태수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6)에서는 과거분사 birtogan이 완료상의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on then magin “von den Weisen”이란 起動者 Agens를 보이고 있다. 현대독어에선 이런 조건하에서는 상태수동이 성립되지 않는다 (cf. Brinker 1971, 177f).¹⁵⁾

14) 고대독어에서는 어미가 없는 과거분사형태가 어미가 있는 형태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 Fritz (1994, 165)에 의하면, Otfrid에 나타난 301개의 분석적 수동형태에서 53개만이 어미형태를 보인다. 이중에서 ‘w + PP’에서는 37 : 16, ‘s + PP’에서는 35 : 15로 어미의 有無비율이 나타나서, 정동사에 따른 차이는 없다 (Kotín 1998, 74). Tatian의 경우에도 약 2 : 1의 비율로 어미가 없는 형태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는 예외 없이 어미를 보이는 고트어에 비하여, 고대독어에서는 이들 형태의 정동사가 점차 조동사로 전락되는 과정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15) 고트어에서도 ‘s + PP’임에도 기동자가 있는 문장이 보인다.

그렇다면 이 두 분석적 수동형태의 사용기준은 무엇일까? 이를 실제 나타난 문장들을 분석하면서 구체적으로 살펴도록 하자.

- 7) inti **uuerdent** hafte **geleitit** in alla thiota, inti Hierusalem ist **gitretan** fon thioton io unz **gifulto uuerdent** ziti thiotono
(Tatian 145,13)
“Und werden Hafte geführt für all die Völker und Jerusalem wird von Heiden zertreten werden, bis Zeiten der Heiden erfüllt sind.”

7)은 예수가 장차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하는 장면이다. 여기에서 ‘w + PP’와 ‘s + PP’의 두 형태가 함께 보이지만, 이를 오늘날의 독일어로 번역하면 문맥상 모두 행동수동으로 번역되는 것이 온당하다. 그런데 왜 첫 번째와 세 번째엔 *uuerden* “werden”의 것이, 두 번째엔 *sin* “sein”이 나타날까? 이는 첫 번째에서는 유대민족이 자유로운 신분에서 포로의 신분이란 새로운 상태로 들어설 것임을 암시한다. 두 번째에선 예루살렘이 이교도에 의해 짓밟히는 사건이 생기되, 또 그 결과에 의한 상태는 상당히 지속될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다가 세 번째에서는 이교도에 지배당할 새로운 상태가 곧 도래할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예언의 성격상 이 문장들은 모두 현재정보보다는 미래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이는 *uuerdan*이 갖는 진입상 *inchoativ* 때문에도 더욱 그러하다. 현대독일어에서도 현재형이 미래형을 흔히 대응되고 있지 않은가?

4.4. ward + PPvi

4.4.1. 이렇게 ‘s + PPvi’과 ‘s + PPvt’를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것으로 보는

þanuh þan in menoþ saihstin **insandiþs was** aggilus Gabriel fram guda in baurg Galeilaias (Lukas 1,26).
“Dann im sechsten Monat wurde der Engel Gabriel gesandt vom Gott in die Stadt von Galiläa.”

것이 타당함은, werden의 경우에도 자동사에서 나온 과거분사와의 결합형, 즉 ‘w + PPvi’가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이의 과거형태 ‘ward + PPvi’도 다음처럼 흔히 보인다.

- 8) fona abrahames samin **uuardh quoman** druhtin (Isidor 555)
 “von dem Samen Abrahams *wurde gekommen*”
 9) huueo got **uuard** man **chiuuardan** (Isidor 375)
 “wie Gott Mensch *geworden wurde*”
 10) tho iz aband **uortan uuard** (Tatian 212,1)
 “als es Abend wurde

이런 과거형태는 오늘날의 독일어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지만, 이는 고대독어에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북쪽의 고대작센어와 고대영어에서는 이런 과거형태가 다음처럼 훨씬 더 빈번히 보인다. 이에 이 형태를 원래그르만어의 고유한 것으로 보아야한다.¹⁶⁾

- 11) tho **uuard** morga **cuman** (Heliand 686)
 “Dann kam der Morgen”
 12) folk **uuirðit** eft **gihuorban** te godes rikea (Genesis 147)
 “das Volk wendet sich wider um Reich Gottes”

4.4.2. 현대독어에서도 ‘wird krank’ : ‘ist krank’에처럼 진입상^{ingressiv}과 지속상^{durativ}의 대비를 여전히 보인다. 그렇다면 고대독어의 ‘wirdid/ward + quoman’ (진입상) : ‘ist/was + quoman’ (지속상)도 역시 이러한 대비를 이루며 사용되었을 것이다. 즉 전자는 ‘한 상태로의 진입’을 그리고 후자는 ‘이러한 상태에의 지속’을 나타냈다. 이 둘의 차이는 시제에 따른 차이에서 나온 것이

16) 고대독어에서는 Isidor에 11개, Monseer Fragment에 4개, Tatian에 3개, Otfrid에 3개가 보인다. 그러나 고대작센어의 Heliand에서 55개가, 고대영어에서도 최소한 21개의 자동사가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네델란드어에서도 13-15세기에 이러한 구조가 비교적 자주 나타난다 (Grønvik 1986, 20).

아니라, 정동사의 동작양태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이 복합형태에서의 과거분사는 모두 앞선 행위나 상황의 종결에 의해 나온 완료상의 상태를 나타내기, '진입하는 행위 : 상태의 지속'의 대비는 정동사에 그 근원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werden, kommen 등엔 원래 완료상이 내재한다. 따라서 구태여 이러한 복합형태를 사용하지 않아도 완료상의 성격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표출된다. 이에 실질적으로 'wirdit/ward quoman = kommt/kam'의 등식이 성립되기에, 두 개의 동사요소를 이용하는 이런 복합형태는 구태여 필요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복합형태는 9세기를 지나면서 점차 드물어지다가, 초기근대독어시기에 이르면 완전히 없어진다.

4.5. 분석적 수동형에서의 시제

4.5.1. 초기고대독어에서는 시제 상에서 세분된 형태가 아직 없었다. 미래형은 대체로 현재형이 대치하였고, 현재완료형 및 과거완료형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문장들을 보기로 하자.

- 13) Thesan titul manage lasun thero Iudeono, uuanta nah theru burgi uuas thiū stat thar der heilant **erhangan uuas**, inti **uuas giscriban** in ebraigon inti in criehisgon inti latinisgon (Tatian 204,2).

“Diese Aufschrift lasen viele von den Juden, weil da in der Nähe der Stadt der Heilende erhängt worden war und (das) war (schon) geschrieben worden in Hebräisch, Griechisch und Lateinisch.”

- 14) thō Herodes gisah uuanta **her bitrogan uuas fon then magin** (Tatian 10,1)

“Da erkannte Herodes, dass er von den Weisen ertrogen worden war.

13)에서는 동사가 모두 과거형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문맥상 inti 다음의 부분은 inti 앞부분보다 시제가 분명히 앞선다. 고대독어에서는 아직 과거형과 과거완료형이 형태상 구분되지 않았다. 14)에서도 uuanta “daß, nämlich”에 이끌린 부분장 내의 ‘bitrogan was’는 주문장의 gisah 보다 시제가 앞선 것이

문맥상 분명히 드러난다. 따라서 시제의 선후는 이렇게 문맥을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

4.5.2. 'w + PP'는 원래 '새로운 상태로의 변환 Übergang in einen Zustand', 즉 진입상 또는 변환상 mutativ을 위해 쓰였다.¹⁷⁾ 따라서 과거분사형이 완료상을 가진 동사에서 나온 경우엔 진입완료상이 되면서, 'w + PP'의 현재형은 자연스레 미래시제를 보이게 된다.¹⁸⁾

15) **arslagan uuir**dit christ (Isidor 471) : lat. occidetur

“Christ wird erschlagen werden.”

16) **uuir**dit **gipredigot** (Tatian 145, 10) : lat. predicabitur

“ (Es) wird gepredigt (werden)”

그런데 이 형태는 일찍이 미래의 의미를 넘어서서 현재의 성격을 뚜렷이 보일 때에도 사용되기 시작한다. 이 현상은 다음처럼 시제를 관통하는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문장에서부터 시작된다.

17) Thiz cunni diuulo ni **uuir**dit **aruorfan** noba thrurh gibet inti fastun (Tatian 92,8)

17) Kotin (1995, 13)에 의하면 werden의 어원은 “sich verändern, eine (neue) Eigenschaft bekommen”이다. 그래서 그는 이 동사의 성격으로 變換相 mutativ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w + PP'에서 주어가 어떤 한 상태로 막 진입함을 나타내게 한다 (Eintritt in einen Zustand). 즉 nan-동사에서의 進入相 inchoativ의 성격과 동일하다.

18) 고트어에서도 'w + PP'가 미래를 나타내는 것은 흔하였다.

qaþuþ-þan jah þamma hatitandin sik: þan waurkjais undaurnimat aiþþau nahtamat, ni haitais frijonds þeinana nih broþruns þeinans nih niþians þeinans nih garaznans ibai aufto jah eis aftra haitaina þuk jah **wairþiþ þus usguldan.** (Luk.14:12)

“Er sagte aber auch zu dem, der ihn geladen hatte: Wenn du ein Mittags- oder Abendmahl machst, so lade nicht deine Freunde, noch deine Brüder, noch deine Verwandten, noch reiche Nachbarn, damit sie dich wieder laden und (es) dir Vergeltung werde.”

“Dies Geschlecht von Teufeln wird nur durch Gebete und Fasten hinausgeworfen”

- 18) **Vvirdit** thaz ouh ana uuan ofto in sambazdag **gidan** (Otfrid III, 16,37)
“das wird auch oft am Sabattag getan”

그리고 Tatian에선 이미 구체적인 현재상황의 묘사도 나타난다.

- 19) uuanan ist thesemo thisiu spahida inti solihiu megin, thiu thuruh sino hinti **uuerdent gifremit?** (Tat. 78,2)
“Woher hat dieser die Klugheit und die Kräfte, die durch seine Hände ausgeführt werden?”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werden이 고유의 변환상을 잃어버림을 보여주는 것이며, 특히 Tatian 이후에는 점차 조동사로 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800년경까지는 아직도 werden이 진입상의 고유 성격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점차 현대독일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조동사로 전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5. 후기 고대독어 (Notker)에 나타난 분석적 수동형

5.1. 그동안 활발하게 나오던 고대독어 기록물들은 9세기말에 이르면 갑자기 사라진다. 그러다가 10-11세기에 걸쳐 Notker의 기록물이 나오면서 후기고대독어 시기로 들어선다. 이때에 이르면 정동사의 조동사로의 경향이 더욱 뚜렷해진다. 우선 이곳에서는 과거분사에 부정의 접두어 un이 있는 형태가 13개, 그리고 어미를 가진 과거분사형태도 13개가 나타나지만, 이들은 모두 400개에 가까운 전체 분석적 수동형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숫자다. 그리고 ‘w + PP’이 급격하게 예전의 ‘sein + PP’이 가진 영역을 잠식해간다. 이는 이 수동형태에서 werden이 예전의 고유한 變換相 mutativ의 성격을 잃어버려서이다. 따라서 ‘s + PP’ : ‘w + PP’의 사용비율은 157 : 226으로 역전된다 (Oubouzar 1974, 11).

5.2. werden은 자신이 갖던 고유 의미를 잃어버리면서, 'w + PP' : 's + PP'가 사용상 가졌던 대립적 기준은 바뀌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w + PP'이 가졌던 의미상에서의 변환적 성격은 본질적으로 동사 werden에서 나왔는데, 이제는 이 성격이 과거분사에서 표출되는 것으로 보여지기 시작한다. 이에 werden은 단순한 조동사의 특성을 강하게 갖게 된다. 물론 이때의 과거분사는 완료상의 동사에서 나온 것들일 때만 해당된다.

- 20) toh ne**b**ist tu nieht heimenan uerro **u**er**tr**iben... Tu habest thi selbo uer**tr**iben (Notker I, 41, 5:8)
 “Du bist doch nicht von der Heimat fern **ver**trieben (worden)... Du hast dich selbst **ver**trieben.”

위 문장에서 추방되어 버리는 '새로운 상태로의 진입' 성격은 완료상을 가진 동사에서 나온 과거분사 uer**tr**iben “**ver**trieben”에서 이미 표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본래의 의미를 발휘 못한 werden은 조동사로 전락하는 운명에 빠진다.

5.3. Notker의 수동형체계는 기능상에서 오늘날의 그것과 아직도 많은 차이가 있다. '새로운 상태로의 진입 'w + PP'의 '새로운 상태로의 진입 내지 변환 (Eintritt in einen Zustand)'과 s + PP의 '지금 존속하는 상태 (bestehender Zustand)'사이에 있는 相 Aspekt상의 차이는 여전히 있었다. 다음 문장을 보기로 하자.

- 21) unde uuio sie sih einoton, fure die reges consules zu habene. die iarliches **keu**uw**eh**selot **uu**urtin (Notker 2, 41)
 “und wie sie sich darüber einigten, anstelle von Königen Konsule zu haben, die jährlich gewechselt werden sollten.”

21)에서는 새로운 상황의 도래가 표현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부사 iarliches “jährlich”는 기존에 있는, 이미 관례화 된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 문장은 얼핏 보면 상황이 바뀌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keuehseht “gewechselt”란 과거분사에서 나오는 것이지, 동사 uuurtin “würden”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다음 문장에서도 ‘w + PP’의 이러한 진입상을 넘어선 사용영역의 확대가 극명하게 보인다.

- 22) daz tiu guoti nicht **kezieret neuuirt** mit temo ambaht. nube daz ambaht **uurt kezieret.** mit tero guoti (Notker 2,41)
 “dass die Güte nicht geschmückt wird mit der (Amts)gewalt, es sei denn die (Amts)gewalt werde geschmückt mit der Güte.”
- 23) alle sunda **uuerdent fertiligot** in touffi (Notker)
 “Alle Sünden werden beseitigt durch Taufen.”

여기에서는 “관직이란 선량한 직무태도로 수행하여야만 힘을 발휘한다.”라는 일반적인 진리가 언급되어 있을 뿐이지, 새로운 상태의 도래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23)도 영원불멸의 진리를 나타내거나 반복되는 연속된 과정을 나타낼 뿐이다. (Valentin 1987, 11).

다음에서도 ‘w +PP’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나 반복태 Iterativ를 나타낼 뿐이다.

- 24) Hilf mir. uuanda ih sieh pin. unde so **uuerdo ih gehalten.** (Notker 921,5/6)
 “Hilf mir, weil ich krank bin und so werde ich (am Leben) gehalten werden (= erlöst werden).”

그러나 여기에서도 Notker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 초점을 두고 있지, 주어가 처한 상태의 변화과정에는 아직 관심이 없다.

5.4. ‘s + PP’는 항상 화자가 말하는 순간의 현재상태를 나타낸다.

- 25) fone slage dorret heuue. fone slahenten sundon **bin** ih heuue gelih **uuortan.** (725,9)
 “Vom (= Durch) Schlagen durren Heue. Von schlagenden Sünden bin

ich wie Heue geworden”

여기에서 's + PP'의 형태는 schlagen이란 앞선 행위의 결과로 생긴 주어의 현재상태 (= bin wie Heu)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주어가 처한 상태에 이르는 과정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¹⁹⁾

26) nu **birn** uuir in sīn gezelt **kegangen**. uuanda uuir in sīnero ecclesia birn (979,12)

“Nun sind wir in sein Zelt gegangen. Davor waren wir in seiner Versammlung.

26)의 'birn kegangen'은 wir가 지금 천막 안에 있다는, 즉 주어의 현재 상태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 상태는 이 문장의 콤마 뒷부분에서 묘사된 행위의 결과로 생긴 상태이다. 이렇게 이 's + PP'가 현재의 성격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음은, 부사 nu "nun"이 사용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다음처럼 's + PP'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건을 위해서도 또한 사용된다.

27) so **ist** diu burg **kezimberot**. so er die burgāra gesamenot. (Notker 1039, 7)

“So ist die Burg nicht früher gebaut, als die Bürger sammelten.”

반면에 다음에서의 'w + PP'는 이미 '상태의 변화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8) Daz ist diu himelisca ierusalem. diu in burge-uuīs **kezimberōt uuirt**. uzer chechēn und geistlichen steinen (Notker 957,11)

“Das ist das himmlische Jerusalem, das gebaut wird von der ganzen Stadt aus Lebenskraft und steinigen Geistlichkeit”

19) 만일 여기에서 'w + PP'를 사용하였다면, 즉 ih uuard heue gelih “ich wurde wie Heu”라면 건초처럼 되는 변화의 과정이 막 종결되어, 현재 그 상태에 들어섰음을 뜻할 것이다.

즉 28)에서는 어떻게 건축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상세히 묘사되고 있다. “전력을 다하여, 굳건한 종교적 열정에서” (=uzer chechēn und geistlichen steinen “aus Lebenskraft und steinigen Geistlichkeit”) 건설이 진행됨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w + PP’가 현대독어의 행동수동으로 이행됨을 명확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선 행위의 결과로 생긴 상태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일 때에는, 다음처럼 아직도 ‘s + PP’과 사용되고 있다.

29) Under iro lefsen ist **ferborgen** das zāligosta eiter (Notker 1012,9)

“Innerhalb ihren Lippen ist das gefährliche Eiter verborgen”

30) du **bist** hart **gemichellichot**

“du bist sehr gelobt.”

특히 30)에서 ‘s + PP’가 선택된 것은, 신자들의 gemichellichōn “loben”한 행위로 생긴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보아서이다.

6. 중세독어의 수동형체계

6.1. 중세독어에서도, 수동형의 두 형태를 相의 구분에 따라 사용하는 현상은 지속된다. “새로운 상태로의 진입”이라는 특성에 맞게 ‘w + PP’의 현재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위해 사용된다. Nibelungenlied에서 다뉴브강의 요정은 하겐에게 다음처럼 말한다.

31) so kumet iu der verge, swenne im der name **wird** **genannt** (1548,4)

“So kommt euch der Fähre, wenn sein Name genannt wird”

그리고 기젤헤르는 훈족병사들의 습격을 일단 물리친 후, 다음처럼 동료들에게 말한다.

32) wir werden noch bestanden, ich wilz iu waerliche sagen (2010, 4)

“Wir werden noch angegriffen, das will ich euch wirklich sagen”

위의 문장들에선 ‘w + PP’에 아직도 미래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전입상이나 변환상의 성격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대신에 과거분사가 나타내는 현재의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행위자체에 초점이 주어지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행동수동과 같은 성격이다. 예전이였다면 이 경우에 ‘s + PP’가 나타났을 것이다.

6.2. 반면에 ‘s + PP’의 현재형은 발화시점에서의 한 상태를 나타낼 뿐, 완료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수동형 완료형과 동일시 될 수 없다. 즉 다음 문장에서 ‘ist getān ≠ ist getān worden’이 아니다.²⁰⁾

33) vil edel Dietrich, was ist iu hie **getān** von den mīnen vriunden (1991,1)

“Edler Dietrich, was haben Euch meine Freunde getan?”

즉 33)에서는 과거의 행위로 생긴 현재 상황을 언급할 뿐, 그 행위과정 자체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 다음에서도 역시 그러하다.

34) Sifrid kumt nicht widere, er ist nū lange **begraben** (Nib. 1725, 4)

“Siegfried kommt nicht wieder, er ist schon vor langer Zeit begraben worden”

34)는 발화의 시점(= nū “nun”)에서 볼 때,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온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이 ‘s + PP’는 이미 현대독어의 상태수동에 크게 접근하고 있다.

20) 이런 ‘s + PP’의 사용방식은 현대 독일어에서도 아직 남아 있다. 오늘날 독일 이력서는 관례적으로 다음처럼 시작되고 있다:

Am 4. 5. 1945 **bin** ich in Hamburg als erster Sohn des Lehrers X und seiner Frau Y **geboren**.

시제 관점에서 볼 때에 이곳에서는 “wurde geboren” 내지 “ist geboren worden”으로 나타나야 옳을 것이다.

7. 초기근대독어의 수동형 체계

7.1. 분석적수동형에서의 새로운 시제형태의 대두

7.1.1. 무스필리에서는 's + PP'의 과거형태가 전연 없다. Isidor (870년경)에서는 이것이 단지 1번만 나타난다. 반면에 'w + PP'의 과거형태는 자주 나타난다. 이렇게 's + PP'의 과거형태가 드문 것은, 이곳에 과거의 성격이 이미 내재되어 있어서이다 (§4.5.1; §5.4). 왜냐하면 이 수동형태의 현재형은 원래 '과거에 일어난 행위의 결과로 생긴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7.1.2. 수동형에서 현재완료형의 출현이 늦어진 것은, 이곳에서의 이원화된 구조형태 때문이다. 왜냐하면 's + PP'의 옛날 형태에는 과거분사에 결과상이 내재하고 있을 때는, 완료시제의 본령인 주문장과 부문장 간의 시제의 선후관계 *Vorzeitigkeit*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었다 (§4.5.1). 따라서 수동형에서는 능동형보다 완료시제의 형태가 늦게 나타나게 되었다. 수동형의 현재완료형태는 중세독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단편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

35) e icht **geschoffen wære worden** (Anegenge 6, um 1180)
 "Ehe etwas geschaffen worden wäre"

36) daz Gahmuret **gepriset vil was worden** (Parzival 57, 29)
 "dass Gahmuret sehr gepriesen worden war"

현재완료형태는 13세기에 이르러도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²¹⁾

37) mit rimen schon zwigene sint diesiu lieder worden gemezzen rehter lange (Jüngerer Titurel 885,1f, um 1300)

그리고 이런 현상은 초기근대독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은 15세기의 'Chronik des Constanzer Konzils'에서 나온 것이다.²²⁾

21) 1)-3)의 문장은 Eroms (1990, 91)에서의 인용임.

38) als nun all sprachen dieser welt **zertailt worden sind** (183,16).

“Als nun alle Sprachen dieser Welt zerteilt worden sind”

39) (der Papst) der ze Constanz **erwellet was worden**.

“(Der Papst), der in Konstanz erwählt worden war”

16세기 초 루터에게서도 완료형 형태는 극히 드물며, ‘s + PP’의 현재형태가 지금의 행동수동 완료형이 있을 곳에 나타났다.²³⁾

40) Christo, der für uns **gekereutzigt** und vom tode wiederum **auferteckt** ist.....(Melanchthon 56,32/57,1).

“Christus, der für uns gekreuzigt und wiederum vom Tod auferteckt worden ist....”

7.1.3. 완료상의 동사들은 원래 과거분사에 접두어 ge-를 갖지 않았다. 따라서 고대독어는 물론이고 중세독어에도 kommen, finden, bringen 등은 ge-가 없는 과거분사만 보였다. 그러나 중세독어 말기와 초기근대독어 초기에 이르면, 이들 동사들도 과거분사에 ge-를 갖는다. 이들이 접두어 ge-를 취하게 된 것은 동사체계에서 相의 기능이 약화되어서이다. 즉 ge-에 더 이상 相의 구분 기능이 없어지면서, 내재한 동사들의 의미성격과는 상관없이 단순히 과거분사를 나타내는 표지 Marker기능만 하게 된다 (cf. 8.1).²⁴⁾

7.1.4. ‘wird getan werden’ 같은 수동형 미래형은 16세기 중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한다 (Oubouzar 1974, 65). 이렇게 미래형 형태가 늦게 나타난 것은, 원래 werden에 미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cf. 3.5.2).

22) 아래 문장은 Valentin (1987, 12)에서의 인용임.

23) 다음 문장은 Oubouzar (1974, 67)에서의 인용임.

24) 완료상의 동사 중에서 아직도 접두사 ge-가 없는 과거분사형태를 보이는 것으로는, 완료형 수동형에 나타나는 worden이 유일하다. 이는 언어경제 (Sprachökonomie)의 일환에서 생겼다. 이리되면 *‘er ist gefragt geworden’와 같이 과거분사가 중첩되는 현상은 피하게 된다.

- 41) diese ding wollest du woll in dein hertz einbilden, wo **wirstu** gewisslich großlich daraus **gebessert werden** (Wickram 254,7)
“Diese Dinge willst du dir wohl in deinem Herz einbilden, wo du gewiss dadurch gebessert werden wirst.”

수동형에서의 미래형의 대두는 원래 ‘w + PP’의 과거분사가 지속상 *kursiv* 이었던 곳에 기반을 두고 출발하였다. 이 경우에 서술의 초점이 행위 그 자체에 두게 되기 쉽다. 16세기에 나온 다음 문장들에게서 과거분사는 모두 지속상의 동사에서 나온 것이다.²⁵⁾

- 42) Mein sún, du solt nit gedenken, das dise ding mit unbedachtem müt **gehandelt werden** (Wickram 248,34)
“Mein Sohn, du sollst nicht glauben, dass diese Dinge nicht vorsichtig gehandelt werden.”
- 43) donnerstag.....**wird** ihm sein erster Sohn Philippus.....**geboren** (Melanchton 14,8f)
“Am Donnerstag wird ihm der erste Sohn Philippus geboren.”

7.2 ‘w + PP’의 행동수동으로의 이행

7.2.1. werden이 원래의 진입상/변환상이라는 고유한 의미성격을 버리면서, ‘w + PP’는 원래 ‘s + PP’이 갖던 지속상의 영역도 넘보게 된다. 이에 주어의 ‘현 상태로의 진입’의 단순한 묘사로부터, 그 ‘상태로의 이행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서술의 초점이 자연스레 바뀐다. 이런 현상은 초기고대독어의 Isidor에서 이미 보인다.

- 44) so uer so uuanit dhasz irz in Salomene **uuari all arfullit**. (38,6)
“wer so wähnt, dass alles für sie durch Salomon erfüllt wäre”
- 45) endi chisiuni joh forasagono spel **uuerdhen arfullit** (26,7)
“und Aussagen von Klugen und Propheten werden erfüllt”

25) 아래 문장의 예는 Oubouzar (1974, 66)에서 나온 것이다.

44)에서는 한 어떤 상태, 또는 이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진행과정을 나타내는 반면에, 45)에서는 그 진행과정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현대독어에서의 수동형의 사용법과 거의 흡사하다.

또 werden이 원래의 이런 의미성격을 잃는 과정에서, Notker나 Nibelungenlied에는 'w + PP'의 현재형이 미래를 더 이상 명백히 보이지 못하는 곳이 더러 발견된다. 이런 현상은 영원불멸의 진리를 나타내거나, 행위가 반복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곳에서 우선 보인다 (Valentin 1987, 11).

46) alle sunda **uuerdent fertiligot** in touffi (Notker)

“Alle Sünden werden beseitigt durch Taufen.”

다음의 Nibelungenlied에서도 'w + PP'는 완전한 행동수동이다. 예전 같았으면 이곳에 's + PP'가 나타났을 것이다.

47) so kumet iu der verge, swenne im der name wirt genannt (1548,4)

“So kommt euch der Fährmann, wenn sein Name genannt wird.”

7.2.2. 초기근대독어시기에 들어서면 이러한 'w + PP'의 영역 확장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한다. 진행상의 영역도 차츰 'w + PP'에 의해 접거되고, 's + PP'에게는 오직 오늘날의 상태수동에서처럼 결과상 Resultativum의 영역만 남는다.

이제 'w + PP'에서 진입상/변환상의 성격은 더 이상 werden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과거분사에 내재한 의미상의 성격에 의하거나, 문맥 Kontext에 따라 이것이 결정되기도 한다. 다음 문장에 나타나는 과거분사는 모두 būwen “bauen”에서 나왔다. 단, 하나는 약변화의 형태로, 다른 하나는 강변화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²⁶⁾

48) und den selben tempel būwete der Salomen, ... und **wart gebūwet**
inner aht halben järe, unde **wart** also **gebūwen**, daz man zu

26) 이하 48)-50)의 문장들은 Kotin (1999, 409)에서 나온 것임.

Jerusalem ni slac daran gehörte (Berthold 5)

“Und denselben Tempel baute Herr Salomon, und (er) wurde gebaut innerhalb von achteinhalb Jahren und (er) wurde so gebaut, dass niemand in Jerusalem einen Schlag daran hörte”

첫 번째 ‘w + PP’에서는 건축의 결과를, 즉 신전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기에 결과상이다. 그러나 둘째의 ‘w + PP’가 건축의 진행상을 나타내고 있기에 진행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w + PP’에 상에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werden이 아닌 문맥인 것이다 (5.2).

‘w + PP’에서 werden이 변환상의 성격을 상실했음은 완료상과 진행상의 동작양태를 보이는 동사들이 다음처럼 werden과 함께 결합하여 함께 나타나는 데에서도 알게 된다.

49) dieser grunt muos **gesucht und funden werden** (Meister Eckardt 2)

“Dieser Grund muss gesucht und gefunden werden”

50) der von dann her zo Colne den Rin heraf za schiffe **gefoirt ind braht wart** (Die Chroniken der deutschen Städte 3)

“Der wurde von dann her den Rhein herab mit Schiffen zu Köln geführt und gebracht”

49)는 진행상인 suchen과 완료상인 finden이, 50)에선 진행상인 führen과 완료상인 bringen이 각기 같은 문장 내에 있다. 이는 werden이 고유 의미성격을 잃고 조동사로 전락되었음을 보여준다.

7.3. 비인칭수동형의 수동형체계로의 편입

7.3.1. 이렇게 werden이 고유한 의미상 성격을 잃고 조동사로 전락함에 따라, 자동사에서 나온 과거분사를 가진 ‘w + PP’도 수동형태에 편입되는 길로 들어선다. 즉 비인칭수동형의 수동형체계로의 편입이다. 만일 werden에 변환상의 성격이 아직 있었다면, 이는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인칭수동형에는 주어가 없기에, 동사의 행위 자체 및 그 진행과정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

다. 다음 문장들에 나타난 과거분사들은 모두 진행상의 동사들에게서 나온 것으로서, 행위 그 자체가 서술대상이 되고 있다.²⁷⁾

51) *dā wart geweinet und geschrit* (Parzival V, 231)

“Da wurde geweint und geschrien.”

52) *ob man iht gein im ginge?/Nein, ez wart geloufen* (Meier

Helmbrecht 702-703)

“Ging man einfach entgegen? Nein, es wurde gelaufen.”

7.3.2 비인칭수동형은 초기고대독어에 이미 ‘w + PP’와 ‘s + PP’의 두 개 형태가 모두 보인다.²⁸⁾

53) *so ist themo gotes drute gisprochan zi guate* (Otfrid V,8,35)

“So ist (es) dem Liebling Gottes im Guten gesagt”

54) *enti im after sinen tatin arteilut uerde* (Muspilli 4)

“und (damit) ihm (= dem Menschen) nach seinen Taten erteilt (= gerichtet) werde”

그런데 Muspilli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민간에서 구전된 것을 기록한 것이다. 따라서 라틴어를 원전으로 하여 번역한 종교기록물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다면 Muspilli에서의 비인칭수동형은 라틴어의 영향에 의해 생긴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이것이 다음처럼 고대작센어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것이 原 게르만어시기에 이미 있었음이 분명하다 (cf. §3.1).

55) *than is im giholpan sithor* (Heliand 3504)

“dann ist ihm später geholfen”

27) 오늘날처럼 비인칭수동형태는 문장 51)에서 보듯, 흔히 *dā* “*da*”같은 부사에 의해 이끌 어진다. 그러나 52)에서처럼 가주어 *es*를 문장 첫머리에 놓는 경우도 이미 나타난다.

28) 비인칭 수동형태는 다음처럼 고트어에서도 이미 보인다.

eis aftra haitaina þuk jah wairþiþ þus usguldan. (Lukas 14:12)

“damit sie dich wieder laden und (es) dir Vergeltung werde.”

7.3.3. 중세독어의 12-13기에서부터 이미 나타나는 비인칭수동형의 태반은 ‘w + PP’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s + PP’는 상대적으로 드물며, 또 이중 대다수는 화법조동사와의 결합형태로 나타난다²⁹⁾

56) hie ensol niht mēr **geswigen sîn** (Parzival IV, 189)

“Hier darf nicht mehr geschwiegen werden”

57) von helden kunde nimmer wirs **gejaget sîn** (Nib. 17, 1002)

“Es konnte von den Helden nicht schlimmer gejagt werden”

그런데 위 문장들을 현대독어로 번역하자면, 모두 행동수동으로 함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여기에선 행위의 진행과정에 초점을 두며 서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중세독어시기의 수동형의 사용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w + PP’이 갖던 기능이다 (§6.1).

8. 결론

독일어의 수동형은 원래 능동형에 대응하여 있었던 것이 아니다. 고트어 및 초기고대독어시기까지만 해도 ‘w + PP’와 ‘s + PP’의 수동형태에 나온 과거분사의 다수는 완료상 *perfektiv*의 동사로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때 *werden*과 *sein*은 조동사가 아니라, 과거분사와 대등한 위치에 있었다. 이 두 수동형태의 사용은 각기 *werden*과 *sein*에 내재한 相 *Aspekt*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즉 이들에 각기 내재한 진입상 *inchoativ* bzw. 변환상 *mutativ*과 지속상 *durativ*에 따라 결정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문법적으로 다른 영역에 속하는 상태수동인 ‘s + PPvt’와 능동완료형인 ‘s + PPvi’도 원래는 같은 계통

29) Kotin (1998, 114ff)에 따르면 중세독어에서 *Parzival*의 경우 전체 1184개 수동형태 중에서 47개의 비인칭수동형이 나온다. 이중에서 ‘s + PP’는 9개이다. 그리고 *Nibelungenlied*에서는 모두 83개의 수동형태 중에서 비인칭수동형은 6개이다. *Vogelweide*에서는 전체 55개의 수동형태 중에서 2개가 비인칭수동형이다. 그러나 Brinker (1970)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초기근대독어에서는 비인칭수동형의 비율이 6,3%로 크게 증가한다.

이었다.

werden에 내재한 진입상 때문에, 'w + PP'는 처음에 미래의 성격을 보였다. 그리고 sein에 내재한 지속상 때문에 's + PP'는 완료의 성격을 원천적으로 가졌다. 이에 따라서 수동형은 원래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시제형태는 없었다. 완료형태와 미래형태는 후에 능동형에 생긴 여러 다양한 시제형태에 대응하여 점차 생겼다.

초기 언어에서는 's + PP'의 형태가 'w + PP'보다 월등히 많았다. 그 사용비율이 오늘날과 같이 역전된 것은 'w + PP'가 원래의 진입상 내지 변환상의 영역을 넘어서서, 원래 's + PP'이 갖던 지속상의 영역에까지 침투하여서이다. 그러다가 후에 주어가 처한 상태에서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행위 및 과정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w + PP'는 오늘날의 행동수동으로 발전해간다. 반면에 's + PP'는 행위의 결과로 생긴 주어가 처한 상태, 즉 결과상 resultativ의 영역에 국한되어 사용되면서, 오늘날의 상태수동에 이르게 된다.

참고문헌

a) 1차 문헌

- Bartsch, K. (1886): Das Nibelungenlied, Brockhaus.
 Behagel, O. (1933): Heliand und Genesis, Niemeyer.
 Braune, W./Helm, K. (1969): Ahd. Lesebuch, 15. Aufl., Niemeyer.
 Curschmann, M./Glier, I. (1987): Deutsche Dichtung des Mittelalters, 3 Bde., Fischer.
 Erdmann, Oskar (1962): Otfrids Evangelienbuch, M. Niemeyer.
 Eggers, H. (1964) (hg.): Der althochdeutsche Isidor, M. Niemeyer.
 Götz, A./Volz, H. (1976): Frühneuhochdeutsches Lesebuch, Vandenhoeck & Ruprecht.
 Jantzen, H./Kolb, H. (1957): Wolfram Eschenbach Parzival, 2. Aufl. W. de Gruyter.
 Leitzmann, Albert (hg.) (1959-61): Wolfram Eschenbach, Parzival, 6 Bde., 5. Aufl., M. Niemeyer.

- Penzl, H. (1984): Frühneuhochdeutsch, P. Lang.
Penzl, H. (1986): Althochdeutsch, P. Lang.
Penzl, H. (1989): Mittelhochdeutsch, Eine Einführung in die Dialekte, P. Lang.
Schlosser, D. H. (1989): Althochdeutsche Literatur, ausgewählte Texte mit Übertragungen, Fischer.
Sievers, E. (hg.) (1966): Tatian, 2. Aufl., Schöningh.
Streitberg, W. (1971): Die gotische Bibel, 6. Aufl., C. Winter.

b) 2차 문헌

- Abraham, W.(1987): Burzio trifft Wulfila. Zu den distributionellen Eigenschaften von wairþan 'werden' und wisan 'sein' im gotischen Passiv. In: Groninger Papers in Theoretical and Applied Linguistics 9, 1-29.
Abraham, W. (1989): Zu den distributionellen Eigenschaften von wairðan "werden" und wisan "sein" im gotischen Passiv. In: Tauber, W.(hg.): Aspekte der Germanistik, Festschrift für H.-Fr. Rosenfeld, Göppingen, 601-620.
Abraham, W. (1992): The emergence of the periphrastic passive in Gothic. In: Leuvense Bijdragen 81, 1-15.
Abraham, W. (1991): Aktionsartsemantik und Auxiliarsierung im Deutschen. In: Feldbusch, E./Pogarell, R./Weiß, C. (hg.): Neuere Fragen der Linguistik Bd.1, M. Niemeyer S.125-133
Bammesberger, A. (1979): Die Deutung partiell konkurrierender Formen: Überlegung zum got. was- und warþ-Passiv. In: Grubmüller, K. (hg.): Befund und Deutung, Gruyter, 96-110.
Beedham, Chr. (1987): Das deutsche Passiv: Aspekt, nicht Genus verbi. In: DaF, 24, 160-165.
Behagel, O. (1924): Deutsche Syntax, Bd.2, C. Winter.
Braune, W./Ebbinghaus, E. A. (1981): Gotische Grammatik, 19. Aufl., Niemeyer.
Braune, W./Eggers, H. (1975): Ahd. Gram., 13. Aufl., Niemeyer.
Brinker, K. (1971): Das Passiv im heutigen Deutsch, Hueber.

- Brinker, K. (1970): Das Passiv in der "Augusburgischen Konfession". In: Moser, H.: Studien zur Syntax des heutigen Deutsch, Festschrift für Paul Grebe zum 60. Geburtstag, Schwann, 162-188.
- Dal, I. (1971): warth kuman and Ähnliches im Heliand. In: Dal, I.: Untersuchungen zur germ. und deutschen Sprachgeschichte, Oslo: Universitetsforlaget, 222-229.
- Eggers, H. (1987): Uuard quhoman and das System der zusammengesetzten Verbformen im althochdeutschen Isidor. In: Bergmann, R. et. al: Althochdeutsch I, C. Winter, 239-252.
- Eichinger, L. M. (1987): Zum Passiv im althochdeutschen Isidor. In: Centre de Recherche en Linguistique Germanique (hg.): Das Passiv im Deutschen. Akten des Kolloquiums über das Passiv im Deutschen, Nizza 1986, M. Niemeyer, 129-145.
- Eroms, H.-W. (1978): Zur Konversion der Dativphasen. In: Sprachw. 3, 357-405.
- Eroms, H.-W. (1989): Zum Passiv im Mittelhochdeutschen. In: Matzel, K./Roloff, H.-G. (hg.): Festschrift für Herbert Kolb zu seinem 65. Geburtstag, W. de Gruyter, 81-96.
- Eroms, H.-W. (1990): Zur Entwicklung der Passivphrasen im Deutschen. In: Betten, A. (hg.): Neuere Forschungen zur historischen Syntax des Deutschen, M. Niemeyer, 82-97.
- Eroms, H.-W. (1992): Das deutsche Passiv in historischer Sicht. In: Hoffmann, L. (hg.): Deutsche Syntax, de Gruyter, 225-249.
- Eroms, H.-W. (1997): Verbale Paarigkeit im Althochdeutschen und das 'Tempussystem' im 'Isidor'. In: ZfdA 126, 1-31.
- Fritz, Th. (1994): Passivformen in Otrfrids Evangelienbuch: Tempus, Aspekt, Aktionsart. In: Sprachw. 19, 165-182.
- Grønvik, O. (1986): Über den Ursprung und die Entwicklung der aktiven Perfekt- und Plusquamperfektkonstruktionen des Hochdeutschen und ihre Eigenart innerhalb des germanischen Sprachraumes, Solum (Norwegen).
- Helbig, G./Kempter, F. (1997): Das Passiv, Enzyklopädie.
- Kotin, M. (1998): Die Herausbildung der germanischen Kategorie des Genus verbi im Deutschen, H. Buske.
- Kotin, M. (1995): Probleme der Beschreibung der deutschen

- Verbmorphologie: Zur Herausbildung der grammatischen Kategorie des Genus verbi. In: Dt. Spr., 23, 61-72.
- Kotin, M. (1995): Das Deutsch als werden-Sprache. Synchronie und Diachronie der werden-Perspektive im dt. Verbalsystem. In: Ehlert, A. (hg.): Das Wort. Germanitisches Jahrbuch 1995, W. de Gruyter, S.12-27.
- Kotin, M. (1997): Die analytischen Formen und Fügungen im deutschen Verbalsystem: Herausbildung und Status (unter Berücksichtigung des Gotischen). In: Sprachw. 22, 479-500.
- Kotin, M. (1999): Die 'Basisrelationen' des Deutschen und die Auxiliarisierung von haben, sein und werden. In: ZfdPh 118, 391-419
- Kotin, M. (2000): Das Partizip II in hochdeutschen periphrastischen Verbalfügungen im 9. - 15. Jh. - Zur Ausbildung des analytischen Sprachbaus. In: ZGL 28, 319-345.
- Kuroda, S. (1997): Zum System der Partizip II-Konstruktion im Althochdeutschen. In: Sprachw. 22, 287-307.
- Leiss, E. (1992): Die Verbalkategorien des Deutschen, de Gruyter.
- Lusky, G. F. (1924): Uerdan und uesan mit dem Partizip Passiv in der ahd. Tatianübersetzung. In: JEGPh 23, 342-369.
- Oubouzar, E.(1974): Über die Ausbildung der zusammengesetzten gesetzten Verbformen im deutschen Verbalsystem. In: PBB (H), 95, 5-96.
- Paul, H. (1969): Deutsche Grammatik IV: Syntax, M. Niemeyer.
- Paul, H./Wiehl, P./Grosse, S. (1989): Mittelhochdeutsche Grammatik, 23. Aufl., Niemeyer.
- Rupp, H. (1956): Zum Passiv im Ahd. In: PBB (H), 78, 265-286.
- Saran, Fr./Nagel. B. (1967): Das Übersetzen aus dem Mittelhochdeutschen, 5. Aufl., M. Niemeyer.
- Schröder, W. (1955): Zur Passiv-Bildung im Althochdeutschen. In: PBB (H), 77, 1-76.
- Schröder, W. (1957): Die Gliederung des gotischen Passivs. In: PBB (H), 79, 1-105.
- Streitberg, W. (1891): Perfective und imperfective Actionsart im Germanischen. In: PBB 15, 70-107.
- Streitberg, W. (1920): Gotisches Elementarbuch, 5. und 6. neubearbeitete Auflage, C. Winter.

- Valentin, P. (1987): Zur Geschichte des deutschen Passivs. In: Centre de Recherche en Linguistique Germanique (hg.): Das Passiv im Deutschen. Akten des Kolloquiums über das Passiv im Deutschen, Nizza 1986, Niemeyer, 3-16.
- Valentin, P. (1999): Wirdhu and the Germanic passive. In: Carr, G. F. (eds.): Interdigitations, Essays for Irmengard Rauch, P. Lang, 141-146.
- Zadorozny, B. (1973/4): Zur Frage der Bedeutung und des Gebrauchs der Partizipien im Altgermanischen. In: PBB (H), 94, 52-76/95, 339-387.

Zusammenfassung

Die Herausbildung der grammatischen Kategorie vom deutschen Passiv und ihre historische Entwicklung

Kim, Jai-Myoung (Kangwon Univ.)

Im Mittelpunkt der vorliegenden Arbeit steht die Untersuchung der Dynamik im System des deutschen Passivs mit dem Rückblick auf das Germanische. Dabei steht es vorrangig im Zusammenhang mit der Grammatikalisierung der Verbalfügungen "werden + PP" und "sein + PP". Und im heutigen deutschen Passivsystem ist zwar die Fügung "werden + PP" unmarkiert, aber im Germanischen überwiegt die Fügung "sein + PP".

Das Partizip der Kombination "werden/sein + PP" wird im Gotischen ausschließlich und im Althochdeutschen noch stellenweise flektiert. Hieraus darf geschlossen werden, dass im Frühdeutschen das Verb finita und das Partizip als relativ unabhängige Glieder einander gegenüber stehen und in einer Konstruktion verkettet werden, die einfach den Status der neuhochdeutschen periphrastischen Konstruktion aufweist.

Die aspektuelle Bedeutung der Passivfügungen lässt sich da als binäre Opposition von kategoriellen Merkmalen "mutativ" (= Zustandswechsel) und "statal" (= Zustand), verteilt auf die Fügungen "werden + PP" und "sein + PP", beschreiben. Diese Merkmale kommt jeweils aus dem inchoativen bzw. durativen Verbalaspekt der Verba "werden" bzw. "sein" heraus. Diese Opposition unterscheidet sich von der neuhochdeutschen Gegenüberstellung vom Vorgangspassiv und Zustandspassiv.

Die Eigenbedeutung der Verben "werden" und "sein" löst sich nun, insbesondere

im Spätmittelhochdeutschen in der Semantik der ganzen Fügungen weitgehend auf, was seinerseits den Verlust der aspektualen Markiertheit der Passiv-Periphrasen mit den Verben finiten verursacht und ihre Entwicklung in Richtung auf die Paradigmatisierung der beiden Fügungen ermöglicht.

Die weitere Entwicklung von Passivfügungen zeichnet sich durch eine zunehmende Expansion der Fügung "werden + PP" in die ursprüngliche aspektuale Sphäre der sein-Konstruktion aus. Dieser Prozess, der zur Auxilialisierung des Verbums finitum führt, setzt schon im Spätmittelhochdeutschen ein und gelangt im Mittelhochdeutschen zur vollen Ausprägung. Die Konkurrenz der beiden Passivkonstruktionen führt nun zur allmählichen Verengung des aspektualen Bereichs der Fügung "sein + PP", für die nun nur das Resultativum übrig bleibt.

[검색어] 상, 지속상, 진입상, 변환상, 완료상

Aspekt, durativ, inchoativ, mutativ, perfektiv

김재명

200-701

강원도 춘천시 효자2동 190-1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kjaim@hanmail.net